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7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남아공 Cape Town항 확장 「컨」터미널, 이 달 중 운영 개시 -----	2
□ 남아공 Ngqura항 1단계 「컨」터미널, 10월에 신규개장 예정 -----	3
□ 인도 Chennai항 PSA 터미널 개장 -----	5
□ 이태리 Grimaldi 그룹, 스웨덴 Wallhamn항 전면 인수 -----	6

□ 남아공 Cape Town항 확장 「컨」터미널, 이 달 중 운영 개시

- 남아공에서 두 번째로 큰 Cape Town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4개 선석을 확장하는 공사가 최근 일부 완공되어 이 달 중 한 선석(601번 선석)의 운영이 개시될 예정
 - Cape Town항은 남아공에서 Durban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
 - 2008년에 695,918 TEU 처리, 세계 112위(2007년 759,481 TEU 처리)



- Cape Town항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 5개의 선석(총길이 1,300m), 수심 10.7~14m, 선석번호 No. 600~604
 - 터미널 운영사는 남아공의 국영기업인 Transnet Port Terminals사(TPT)
- ※ TPT사는 남아공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운영사로서 남아공의 주요 7개 항만을 통합 관리하는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의 자회사



○ Cape Town항 확장공사의 개요

- 총공사비 5억 2,700만불(약 6,800억원), 준공 2012년, 수심 15.5m로 증심
- 현재의 연간 처리능력 74만 TEU를 연간 140만 TEU로 확대
- 이번에 확장 개장되는 601번 선석에 이어 602번 선석도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기간 동안에는 602번 선석의 운영이 중단될 예정

자료 :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 South Africa Engineering News 2009.6.15

□ 남아공 Ngqura항 1단계 「컨」터미널, 10월에 신규개장 예정

- 남아공의 3대 컨테이너 항만인 Durban항, Cape Town항 및 Port Elizabeth항은 현재 수심 제약으로 인해 2,400 TEU급 전후의 컨테이너선만 기항

< 남아공 3대 컨테이너 항만 현황 >

항만명	「컨」처리량('08)	선석길이	선석수	수심	터미널 운영사
Durban항	2,361,974 TEU	2,550m	9개	11.9~12.2m	Transnet Port Terminals사
Cape Town항	695,918 TEU	1,300m	5개	10.7~14m	상 동
Port Elizabeth항	367,640 TEU	635m	2개	12.2m	상 동

- 남아공 정부는 현재 남아공 최초의 심해항만인 Ngqura항의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오는 10월에는 1단계 공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될 예정

- Ngqura항은 Port Elizabeth항에서 20km 떨어져 있는 Coega강 하구에 위치



○ Ngqura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공사 진행상황

【 사업개요 】

- Ngqura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공사는 남아공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공사 중 최대 공사
- 총사업비 : 80억 Rands(약 7억 9,500만불, 약 1조 2천억원), 2002년 ~ 2012년 공사
- 총 5선석, 수심 16.5m, 선석길이 1,500m(2개 컨테이너 선석, 3개 일반잡화 선석)
- 남아공 최초 최대의 심해항만으로서 8천~9천 TEU급의 Super Post-Panamax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

【 단계별 사업내용 】

- ① 1단계 : 2009.10 개장 예정, 선석길이 1,300m 확보, 연간 80만 TEU 처리능력 확보
→ Cape Town항의 연간처리능력에 상당
- ② 2단계 : 1단계 개장후 처리물동량 추이에 따라 필요시 Fast Track 방식으로 조기 완공 예정, 모든 선석에 하역장비 설치, 연간 200만 TEU의 처리능력 확보
→ 남아공 최대의 항만인 Durban항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최대항만으로 부상

【 사업추진주체 】

- Ngqura항 건설공사와 동시에 Coega 산업개발단지(Coega Industrial Development Zone(IDZ)) 개발공사도 함께 진행
- Ngqura항 건설은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가(운영사는 TPT사), Coega 산업개발단지는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CDC)이 분담하여 추진중

< Ngqura항 개발계획 Layout >



자료 :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 The Herald 2009.6.18

□ 인도 Chennai항 PSA 터미널 개장

- 인도 남동부의 Chennai항은 Jawaharlal Nehru항에 이은 인도 제2의 컨테이너 항만
- 2008년에 120만 TEU를 처리, 세계 84위(2007년 1,052,993 TEU)
- 이 물동량은 기존의 Chennai Container Terminal(DP World사 운영)에서 처리한 물량으로 4개 선석(885m, 수심 13.4m)의 처리물량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



- 세계 2위의 컨테이너터미널 사업자인 싱가포르의 PSA사는 Chennai항에 BOT 방식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자사터미널을 2009년 6월 하순 개장하여 운영 개시
 - 인도 물류기업 Sical사와 합작으로 SPC인 Chennai International Terminals사를 설립
 - 지분율 PSA 73 : Sical 27%의 합작기업
- Chennai International Terminals 시설개요
 - 총3선석 832m, 수심 15.5m, 야드면적 35ha(35만㎡), 연간처리능력 150만 TEU
 - 총사업비 1억 8백만불(약 1,400억원), 30년 BOT 조건



자료 : Chennai International Terminals, Live Mint 2008.12.22, CI Online 2009.6.19

□ 이태리 Grimaldi 그룹, 스웨덴 Wallhamn항 전면 인수

○ 스웨덴 Wallhamn항 개요

- 북해(North Sea)에 위치한 항만(Göteborg항 북부)으로서 스웨덴 유일의 민간 항만
- 선석길이 712m, 항만부지 50ha(50만m², 약 15만평)
- 2008년에 자동차 12만 5천대, Ro-Ro 8,500대, 컨테이너 6천 TEU를 처리
- EUKOR Car Carriers사의 노르딕, 러시아 및 볼틱국가들에 대한 현대/기아자동차 수출환적항이며, 또한 이태리 Grimaldi 그룹의 노르웨이 및 스웨덴 지역에 대한 카페리선등의 환적항으로 기능



- 2009.6.24 이태리의 세계 유수의 해운그룹인 Grimaldi사는 EUKOR Car Carriers사의 Wallhamn항 지분 50%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종전의 자사지분 50%에 추가하여 지분 100%를 완전 소유하게 됨

- 구체적인 인수조건은 미공개이나 EUKOR Car Carriers사의 Wallhamn항 장기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

※ Grimaldi 그룹 : 이태리 Napoli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운반선 · 카페리선 · 컨테이너선 및 로로선 등 총 120척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해운그룹

- Grimaldi Lines, Atlantic Container Line, Malta Motorways of the Sea, Minoan Lines 및 Finnliness가 그룹소속 선사

자료 : Journal of Commerce 2009.6.25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